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교회와 최후의 것들, 세션 11, 최후의 것들 소개, 두 시대, 하나님의 왕국, 이미와 아직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교회 교리와 최후의 일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최후의 일 소개, 두 시대, 하나님의 왕국, 이미와 아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연구는 교회 교리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최후의 일의 주제로 넘어가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다가올 일에 대해 가르쳐 준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성경적이며, 주요한 것에는 주력하고, 부차적인 것에는 부차적으로 주력하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주세요. 우리를 축복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후의 일에 대한 우리의 개요는 무엇보다도 두 시대,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종말론 연구에 있어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단일 원리인 이미와 아직을 다루는 소개입니다.

그런 다음 죽음과 중간 상태, 그리스도의 재림, 시대의 징조,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 육신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상태를 공부할 것입니다. 글썄요,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상태, 즉 의로운 자에게는 새 땅에서 부활한 존재이고 불의한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서론, 두 시대.

신약은 현재 시대와 다가올 시대를 대조합니다. 마태복음 12:32. 성령을 모독하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것이나 영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리라. 또 인자를 거스려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나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신약은 이 시대와 저 시대, 또는 현재 시대와 다가올 시대를 구분합니다. 여기서는 이미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입니다.

의미는 그들이 결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잘못 추론하여, 이 죄가 아니라 다른 죄에 대해서는 다가올 시대에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34, 35도 같은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는 연설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 누가복음 20장 34, 35절. 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한 여인은 남편이 일곱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부활할 때 누구의 남편을 맞이하게 될까요? 일곱 명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은 용어를 주의해서 결혼하고 시집을 갑니다. 그러나 그 시대와 죽음에서 부활하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은 결혼하지도 시집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들은 천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움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오, 당신은 죽으면 천사가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사가 하지 않는 한 가지 구체적인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필멸을 겪지 않습니다.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와 저 시대를 대조시키십니다. 결혼은 이 시대에 속합니다.

다가올 시대에 그런 결혼은 없습니다. 그런 구절을 더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대와 저 시대, 현재 시대와 다가올 시대, 그리고 그 용어의 혼합.

이제, 이 시대는 악한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해 특징지어집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시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 눈멀음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4, 마귀가 눈멀게 합니다.

제가 바로 이해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경우, 이 세상의 신, 또는 이 시대의 신으로 번역할 수 있는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멀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 실명을 위한 악한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후서 4:4, 영적 죽음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에베소서 2:1, 2.

그리고 당신은 한때 걸었던 허물과 죄에 대한 신뢰 속에서 죽었습니다. 이 과정을 따라가면, 당신은 공기의 권세의 흔적을 따라 세상이나 시대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악한 영적 눈멀음과 영적 죽음이 특징입니다.

다가올 시대 또는 그 시대는 죽은 자의 부활로 특징지어집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0:35과 36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가올 시대는 죽음과 부활이 없는 것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영생. 누가복음 18장. 두 시대를 대조해 보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유언서 사이의 유대인 기록에서 나타납니다. 두 시대 사이의 이러한 대조와 예수와 사도들은 그들의 시대 사람들이었고, 농담은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가 말씀하신 후,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26절에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는 집을 떠나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시대에 여러 배나 더 많은 것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 문맥에서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에 영원한 생명의 동의어이다. 이 시대는 다가올 시대와 대조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해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자는 이 시대, 이 시간에 몇 배나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가족에 의해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더 많은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 이 시대에 있지만, 다가올 시대에는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가 악, 영적 눈멀음, 죽음으로 특징지어진다면, 다가올 시대는 부활, 누가복음 20:35, 36, 영생, 누가복음 18:30,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에베소서 2:7, 에베소서 2:7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래서 다가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그의 은혜와 자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시대를 크게 대조합니다.

이 시대, 악, 영적 눈멀음, 영적 죽음. 저 시대, 다가올 시대, 부활, 영생,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 이제 우리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대의 완성이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현재 시대이고, 다가올 시대와 대비됩니다.

이 시대, 저 시대, 현재 시대, 다가올 시대. 이제, 이 모든 논의는 구약을 전제로 합니다. 배경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세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 시대, 메시아 시대, 그 시대, 아직 오지 않은 시대.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시대나 시대들의 완성이 이미 이 시대에 성취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것의 성취이고, 이것은 그것의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시대는 현재 시대의 성취이며, 당신이 원한다면 과거 시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11.

저는 성경적 증거를 제시하고 나서 논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논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중 일부는 주님의 만찬이 악마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면역을 준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희 사원에 가거나 심지어 사원에서 매춘부를 방문하면서 주님의 만찬을 먹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면역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울은 이에 전혀 만족하지 않고, 조상들은 모두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2.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영적 양식을 마셨습니다. 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는 신약 성례전의 광경을 통해 구약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영적 양식을 먹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면역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조상들의 특징적인 네 가지 죄를 나열합니다. 우상 숭배, 신을 시험하는 것, 성적 부도덕, 불평.

어머, 투덜거림은 힘든 회사에 들어와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이 그래요. 그들은 성례전 축복을 받았고, 실제로 신약 성례전 없이도 그 혜택을 받았어요.

그들은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지만, 그것조차도 그의 요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실체를 지녔고, 그것이 그들이 그 네 가지 방식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11절. 우리는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나쁜 본보기에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11 .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 예를 들어 뱀에 의한 멸망에 대해 말씀한 후에요.

이제, 이런 일들, 고린도전서 10:11, 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지만,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약의 신자들을 묘사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대의 끝이 온 사람들.

이것은 아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가올 시대가 아닙니다. 실례합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구약 백성의 관점에서 시대의 끝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불평하고, 성적 부도덕에 빠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특히 우상 숭배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만찬이 당신에게도 면역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라.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라.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그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완성, 시대의 끝이 구약의 관점에서 이 시대에 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에서 구약은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때때로 미래에 대해 말합니다.

오래전에 히브리서 1:1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는 작은 대명사와 작은 대명사 설명자를 추가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11, 히브리서 1:2, 히브리서 9:26. 다시 한 번, 맥락에서 히브리서 전체는 맥락, 역사적으로 구원적 맥락, 신약과 구약의 우월성을 대조하는 맥락입니다.

그는 예수에게 예수의 우월성, 제사장직, 희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매년 속죄일에 자기의 피가 아닌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거둬서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9:26,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세상 창조 이래로 겪으셨을 고난을 거둬서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그는 세상 끝에 단번에 나타나 그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셨습니다. 두 구절 뒤에 그는 두 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의 시대, 속죄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대의 종말, 그 표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재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는 동일하지 않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히브리서 6 :5 입니다. 이 위대한, 위대한 성경의 가장 유명한 경고 구절 안에 우리는 이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들의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묘사하는 경우, 그런 다음 떨어져 나간 자들의 경우, 6절에서 그들을 다시 회개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특정한 축복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하고, 여기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공유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을 맛보았고, 다가올 시대의 권능을 맛보았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그들은 다가올 시대의 힘을 맛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조지 래드는 누구보다도 복음주의 종말론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왕국에 대한 훌륭한 책들이 있지만, 저는 이 특정 지점에 대해서는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가 어떤 신비로운 방식으로 현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는 그 아이디어를 대중화했고, 그것은 정말 대중화되었고 등등.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는 실제로 제 멘토는 아니었지만, 그는 선임 신학자였고, 저는 물론 그를 어떤 면에서 제 멘토라고 부르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 동료, 제가 많은 것을 배운 연장자 동료, 사실, 처음에 마지막 것에 대한 제 노트는 제가 개발한 그의 노트였습니다.



어쨌든 미래가 현재로 들어온다는 이상한 개념이 아니라,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역전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현재는 미래의 선구자라는 일반적인 신약성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공언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은 이 시대에 있었지만, 다가올 시대의 정신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두 시대 신학은 신약성서 종말론의 기초가 됩니다.

천년왕국에 도달하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매우 은혜롭고 개방적이며, 사실 네 가지 관점, 즉 아밀레니얼주의, 포스트밀레니얼주의, 역사적, 경륜적 전천년주의가 가장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 차이점을 공유하고, 그런 다음 훌륭한 사람인 스탠 그렌츠가 쓴 좋은 책, 천년왕국 미로를 따라가며, 그는 주해는 고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테이블은 준비되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재림, 부활, 최후의 심판, 영원한 운명.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저는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과 같은 수준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그 네 가지 관점 각각이 진실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신학과 해석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20장이나 심지어 신약 전체에 대한 후천년설 해석에 동의하지 않지만, 복음에 대한 그들의 낙관주의는 좋아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제가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Hoekema가 그의 책 *The Bible in the Future*에서 정말로 마지막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년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천년설에 대한 장을 가지고 있으며, 경륜주의 형제들에 대한 큰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천년설 천년설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 그의 문제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대나 다가올 시대에 속하지 않는 듯합니다. 필멸자, 죽는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과 섞여 있습니다.

필멸자는 이 시대에 속합니다. 부활한 사람은 다가올 시대에 속합니다. 저는 모든 관점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점과 세 번째로 각각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확실히 강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6장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신자들은, 그리고 오늘날에도, 다가올 시대의 권능을 맛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영이 그들의 삶과 그들 가운데서 일할 때를 기대하며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 서론적 아이디어. 첫 번째는 두 시대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신약의 개념이지만 구약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가 있지만 노트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기본 원칙은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오, 세상에. 시편 103편.

주님은 하늘에 그의 보좌를 세우셨고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시편 103편의 맥락에서 그것은 인간, 특히 그의 언약 백성, 그리고 천사들, 그 구절 뒤에 오는 그의 백성, 천사들, 그 구절 앞에 오는 그의 백성, 그 구절 뒤에 오는 천사들 위에 있는 왕국입니다. 시편 103편과 20절.

주님은 하늘에 그의 보좌를 세우셨고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오 당신들, 그의 천사들, 그의 말씀을 행하는 강력한 자들, 등등, 이전의 신자들, 인간들, 신자들은 그의 왕국의 일부이고, 이어지는 구절들, 천사들은 그의 왕국의 일부입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님이라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과 천사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왕국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무엘하 7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의 후계자들을 통해 아버지가 아들들과 관계를 맺듯이 통치하는 다윗 언약의 제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구약의 큰 배경이 있습니다. 율트키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왕국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의 특별한 왕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신약으로 이어지고 확장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의 공적 사역에서 왕국을 개시합니다. 사실, 단계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공적 사역에서 왕국을 개시합니다.

왕국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확장됩니다. 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 취임, 확장, 완성, 공적 사역, 세션, 재림에서만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거의 다루지 않은 풍부한 구약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가 사탄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하며 모독합니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의 염소를 정말로 낚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통을 모두 그들에게 주게 합니다. 그는 그것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죄를 지었습니다.

오, 그는 다른 말도 하지만, 그는 몇몇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들은 그것이 베엘제불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에 대한 또 다른 구약 중간 시대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귀신들의 왕자 베엘제불에 의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2:24.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27, 내가 베엘제불, 베엘제불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세례자 요한과 예수는 모두 회개를 선포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의 가르침, 치유, 악령 퇴치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누가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은유죠, 그렇죠? 내가 베엘제붓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위한 하나님의 손가락. 물론, 물론이죠.

우리는 손과 손가락을 사용하여 세상을 조작합니다. 망치로 손가락 하나를 정말 잘 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야, 아야.

당신은 그것을 모든 일에 사용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이 숫자로 우리는 세상을 조종하고 컴퓨터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선함과 우리의 휴대전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대행,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의 마술사들은 모세의 표적과 재앙을 일부 모방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재앙이 오고, 그들은 그것을 모방할 수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아, 종기든 무엇이든, 종기는 그들의 몸에 있습니다.

와. 우리 마법 예술로는 이걸 건드릴 수 없어. 이걸 의 행위고, 이걸 신의 손이야.

헐. 그들은 모세를 위해 증언하고 있어요. 네,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왕국의 비유를 가져오십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는 왕국의 일을 합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옵니다.

이제, 그것은 영적인 왕국이고, 이런 것들 중 일부는 단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부활과 치유, 사람들은 다시 죽습니다. 사람들은 그 후에 죽습니다.

그가 키운 사람들, 나인의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는 아마도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이스라엘에 살아 있다면 정말 늙었을 것입니다. 2,000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 죽은 자의 부활, 새 땅에서의 삶에 대한 작은 예언입니다.

예수께서는 왕국을 새롭고 능력으로 가져오셨지만, 여러분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우리는 이와 같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31.

산헤드린은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다. 베드로의 대답, 29절,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를 지도자이자 구세주로서 오른편에 높이셨고,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베푸는 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워드 마셜은 역사가이자 신학자로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대한 그의 책에서 옳습니다. 첫 번째 책에서, 오 데오필로여,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후 승천하신 날까지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가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모든 것에 대해 썼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암시하는 바는 누가가 예수가 계속 행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썼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왕국은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모든 믿는 자에게 회개와 용서의 신성한 은사를 베푸십니다(행 5:31). 에베소서 1:19-23, 저는 다른 천년왕국 관점이 진리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계시록 20장의 무천년왕국 해석이 틀렸다면,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는 그들의 신학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면 그것은 참된 신학의 예이고 잘못된 해석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이하에서 바울은 에베소인들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의 능력의 역사에 따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큰 능력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그의 오른편에 앉히셨을 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를 모든 것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통치하십니다.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 언어가 다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만 아니라, 다가올 시대에도 언급된 모든 이름 위에 계십니다.

여기 두 시대를 대조하여 예수의 현재 왕직을 보여줍니다. 오, 그는 미래에 외적으로 그리고 더 보편적으로 통치할 것이지만, 그는 이미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천년설의 가르침이라면, 그것은 계시록 20장의 해석과 상관없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골로새서 1:13과 14는 바울이 흔하지 않게 사용한 구절입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라는 언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골로새서 1:13, 14,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왕국의 비유를 전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왕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와 통치입니다.

네, 구약성경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왕이 등장합니다. 왕국은 하나님이 왕국을 확장합니다. 특히 성령이 왕국을 확장하는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앉으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왕국은 왕이 다시 올 때에만 완성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31 이하에 양과 염소의 통로가 있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으로 올 때, 그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그리고 그의 모든 천사들이 그와 함께, 천사들이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는 그의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을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왕이십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일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왕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서로 나누실 것입니다.

양은 오른쪽 에 있고 염소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내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자들아,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는 염소들을 그의 면전에서 쫓아내어 악마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보냅니다, 41절.

왕국은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에만 완성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2~28.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살아나겠지만 각자는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오실 때에, 그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왕국을 넘겨드릴 때에 끝나리니, 이는 그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해야 함이니라. 멸하실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으니, 만물을 복종시킨다고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키신 하나님 곧 아들이 받아들여진 것이 분명하니라. 만물이 아들에게 복종되면 아들 자신도 그에게 복종하리라. 그것은 틀렸다.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할 때, 아버지께 복종할 때, 아들 자신도 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셨고,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공적 사역에서 왕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그의 세션에서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의 재림 때만 성취될 것입니다. 두 시대는 신약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 근본적입니다. 왕국의 다른 단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실현된 종말론은 위험합니다.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은 치유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명명하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믿음만 있다면 치유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위 치유자라 불리는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조차도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 시대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의 부재와 영생은 다가올 시대에 속합니다. 두 시대에 걸친 왕국의 단계가 중요하지만, 마지막 것들에 대한 근본 원리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이 아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약속된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아니다는 것은 아직 충만하게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는 선형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지금까지 살펴보고 이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적 언어입니다. 요한일서 2장,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은 잊어버리세요. 신약에서는 이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날을 가져오십니다. 네, 이미 마지막 날들이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그 개념은 미래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들은 대로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므로 이제 많은 적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마지막 때임을 안다.

여기 제 논제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 아닌 것이 신약 전체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은 물론 구약에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것들의 모든 주요 특징은 이미이고 아직은 아닙니다. 방금 읽은 구절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비교하면 아직 미래의 적그리스도 인물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듯이 적그리스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적그리스도 인물, 아직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왔습니다.

그는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거부한 것이 잘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세웁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부했지만, 그들의 행보는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인내하세요. 당신은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등등. 마지막 것들의 모든 주요 측면은 이미 있고 아직 아닙니다.

구원, 요한복음 3장. 당신은 구원과 정죄가 마지막 날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충만함은 마지막 날에야 드러날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보세요.

요한복음 3:6, 3:17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당신은 잠깐만요라고 말합니다.

정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때의 최후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최종 정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지금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습니다. 이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는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그것은 이미 있고 아직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이며 정죄받지 않습니다.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것들의 모든 주요 측면은 둘 다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보기에 멋진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재림입니다.

요한복음 14:3.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예비하리라. 다시 오리라. 아직은 아니니라.

다시 와서 너를 내게 데려갈게. 다시 올게. 흑백으로 나와 있어.

예수가 돌아올 것이라는 진술. 요한복음 14:23. 분명 예수는 미래에도 돌아올 것이다. 그게 아직 아니다.

하지만 같은 장에서도 이미 어떤 의미로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요한복음 14:23, 그는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신자들과의 교제를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3, 그들이 당신을 아는 것입니다, 곧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부근.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예수가 지금 그의 사람들의 삶에 들어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신약성경은 곳곳에서 그가 다시 온다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이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통합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과 정죄, 재림, 적그리스도, 계속됩니다. 부활, 요한복음 5장. 부활은 영적이며 육체적입니다.

영적으로 지금은 거듭나고, 육체적으로는 아직 몸의 부활에 이르지 않았습니니다. 요한복음 5:24, 25. 문맥을 웅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24,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5:25, 한 때가 오고 지금이니라.

요한복음에 이미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가 살아날 때. 그는 나사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는 바로 앞 구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듭남은 영적인 부활이며, 그것은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럼 미래적 부활은 없나요? 틀렸습니다.

이것에 놀라지 말라. 28. 너희는 더 큰 것을 보리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 곧 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 부활 역시 이미 거듭남 속에 있고 아직은 육체의 육체적 부활 속에 있지 않다. 그 결과, 신자들은 이미와 아직 아닌 것 사이의 긴장 속에 산다.

로마서 8장, 우리는 이미 우리의 필멸의 몸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필멸적입니다.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용어상 모순이에요. 오, 그것은 당신의 필멸의 몸 안에 성령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과 죽음을 원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말하자면 죽음의 한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긴장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는 현실적이고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한 번 설교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라는 건 확실해. 하지만 그는 그것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경건한 여성의 장례식이었다고 말했어. 나는 장례식을 하지 않아.

그리고 예배 전체는 승리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애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죽음은 성경에서처럼 적대자로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승리, 빛, 등등.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 지나치게 실현된 종말론이야.

저는 그런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침례교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은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과 내 아들 중 한 명은 절친이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함께 스포츠 경기장에 앉아 우리 아들들이 경기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오, 우리는 그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예배에서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그와 그의 자매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통로를 걸어갈 때가 되었을 때, 그 소년은 해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인 줄 알았어요. 그는 그냥 울었어요. 그의 눈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해방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는 주님과 함께 있었고, 그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극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거기에는 몸이 있습니다

.

그리고 그것은 병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마지막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26,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고 그것은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장례식에서 애도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애도만? 물론, 애도만은 아닙니다. 기독교 장례식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합니다.

나는 쓴맛을 강조하지도 않아. 그냥 그것이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를 그리워해.

우리는 그가 아내와 자식을 두고 간 것이 슬프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사랑했고 그를 즐겼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약간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그것으로 충분하죠. 물론, 당신은 주님과 당신을 찬양하고, 그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래와 아직 아닌 것, 부활 등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오 세상에, 그것은 왜곡된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 장례식은 씁쓸해야 합니다.

것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우리는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 죽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 시리즈의 바로 다음 강의에서 볼 수 있듯이요.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교회 교리와 최후의 것들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최후의 것들 소개, 두 시대, 하나님의 왕국, 이미와 아직입니다.